

시청률 神 ‘도깨비’ 찬란한 종영

케이블 첫 20% 돌파 ...‘응답’ 제쳐

미주·캐나다·유럽 등 수출 흑자

VOD·광교·OST도 대박 행진

tvN 금토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가 지난 21일 케이블 프로그램 사상 처음으로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막을 내렸다.

마지막회 시청률은 평균 20.5%, 순간 최고 22.1%로 집계되며 ‘응답하라 1988’ 마지막회 20회가 가지고 있던 평균 19.6%, 순간 최고 시청률 21.6% 기록을 넘어섰다.

그동안 ‘파리의 연인’,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를 집필했던 김은숙 작가는 ‘도깨비’에서 소재와 외연의 확장에 성공했음을 알렸다. 김 작가 작품 최초로 멜로가 아닌 다른 이야기와 캐릭터가 시청자의 혼을 빼놓았다.

물론 이번에도 주목같은 대사가 많았다. “비로 올게, 첫눈으로 올게”는 이미 유행어가 됐다. 또 남자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 리드미컬하게 주고받는 ‘핑퐁 대사’의 묘미도 여전했다.

하지만 ‘도깨비’는 대사에 그친 드라마가 아니다. 이야기가 살아있었다. 도깨비, 저승사자, 삼신할매, 귀신, 악령에 더해 신까지 소환해 판을 키운 김 작가는 이 다양한 키워드에 하나하나 삶을 불어넣어 풍성한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했다.

시공간 역시 넓디넓어 900여년의 세월과 지구촌 여기저기가 무대가 됐고, 이승과 저승, 이승과 저승 사이의 어느때까지 판타지의 스케일을 키웠다.

다만 뒷심 부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김 작가는 무슨 이야기든 초반에는 시청자가 혹 빨려들어가게 하는 기막힌 재주를 부리지만, 어느새 이야기는 사라지고 말장난만 남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깨비’도 어김없이 중반부에서 이야기가 실종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저 찬란하고 위대한 도깨비가 고작 여고생과 로맨틱 코미디나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냐는 핀잔 속 지루하고 늘어진다 불평이 이어졌다.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김 작가와 이응복 PD는 ‘도깨비’에서 막강한 화학작용을 일으켰다. 이 PD는 CG를 이용한 특수효과에 완벽을 기한 것은 물론이고, 화면의 구도와 색감, 미장센과 소품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신경 썼다. 완벽을 기하다보니 결국 시간이 부족해 지난 14일 ‘도깨비’는 예정된 14회를 방송하지 못하고 결방하는 사고를 냈다.

심지어 종영일인 21일 새벽까지 꼬박 촬영을 진행해야 했다. 비록 결방은 피할 수 없었지만, 이 PD의 집요하면서도 미적 감각이 넘치는 연출 덕분에 한층 매력적인 드라마가 됐다.

‘도깨비’는 공유에서 시작해서 공유로 끝난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9년생, 올해 38세인 공유는 ‘도깨비’로 인생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다.

앞서 ‘커피프린스 1호점’이 있었고, 영화 ‘부산행’도 있었지만 ‘도깨비’는 그가 타이틀 톨을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온 드라마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공유는 처음부터 각광받았던 배우가 아니다. 2001년 ‘학교4’로 데뷔한 후 2007년 ‘커피프린스 1호점’을 만나기 전까지 연예계 많은 배우 중 한명이었을 뿐이다. 군 제대 후 출연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주목을 받았고 영화 ‘부산행’과 ‘밀정’으로 2016년을 일찌감치 자신의 해로 만들었다.

공유는 앞서 ‘도깨비’ 제작발표회에서 “인간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기준을 잡기도 어려웠다”고 토로하며 “오래 고심해서 선택한 작품인 만큼 가진 것을 모두 불사지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고려시대에는 백전백승을 자랑하는 뛰어난 무인이었고 900여년의 생을 이어오면서는 불멸의 삶에 고통받고 슬퍼하는 쓸쓸한 신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마침내 만난 도깨비 신부이자, 어디어린 여고생 지은탁 앞에서는 첫사랑에 걸려들버린 남자의 두 근대는 설렘을 얼굴 가득 담아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수출길이 막혔지만 ‘도깨비’는 중국에 안 팔고도 이미 흑자를 냈다.

‘도깨비’는 김은숙 작가의 명성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됐고 동시방송이 됐다. 미주, 캐나다,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에서는 한국 본방송 후 24간 이내 서비스를 하는 동시방송이 진행됐다. 그의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베트남에도 수출됐다.

주변형비디오(VOD) 서비스에서도 대박을 쳤다. CJ E&M은 22일 “VOD 매출이 드라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역대 드라마 VOD 최고 기록은 tvN ‘응답하라 1988’이 세웠다. 회당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20부 전체 매출이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 E&M은 “‘도깨비’는 1회부터 ‘응답하라 1988’의 VOD 매출을 앞섰나갔다”고 전했다.

광고도 완판됐다. ‘응답하라 1988’이 회당 3억 원



▲ 김고은·공유 이동욱·유인나



류수영·박하선 웨딩마치

비·김태희 이어 올해 두번째 배우 부부 탄생

배우 류수영(본명 어남선·38)과 배우 박하선(30)이 22일 백년가약을 맺었다. 류수영과 박하선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지인만 초대할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류수영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지인만 초대할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류수영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지인만 초대할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투윌스’를 찍으면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5년 3월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2년여 열애 끝에 지난 6일 각자 SNS를 통해 결혼을 직접 발표했다. 신혼여행은 일본 오키나와로 미리 다녀왔다. 류수영은 내달 첫 방송 되는 KBS 2TV 새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 출연할 예정이다. 박하선은 tvN 드라마 ‘혼술남녀’ 방송이 끝난 후 휴식을 취하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너의 이름은.’ 300만 관객 돌파

국내 개봉 4일 만에 중역대 최고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사진)이 3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국내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가운데 최고 흥행작으로 떠올랐다.

22일 영화의 수입사 미디어캐슬에 따르면 ‘너의 이름은.’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총 누적 관객 302만1651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종전의 최고 흥행 기록을 가진 ‘하울의 움직이는 성’(2004년·301만명)을 제치고 일본 애니메이션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 됐다.

일본 이외 국가를 모두 포함한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로는 현재 8위에 올랐다.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1위는 ‘겨울 왕국’(1029만명)이며 2위는 ‘쿵푸 팬더’(506만명), 3위 ‘인사이드 아웃’(496만명), 4위 ‘주토피아’(470만명), 5위는 ‘쿵푸 팬더’ /연합뉴스



(465만명)이다. 이어 ‘쿵푸 팬더3’(398만명), ‘슈렉2’(2004년·330만명)가 6위와 7위를 기록 중이다.

‘너의 이름은.’이 3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이 작품을 연출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한국을 다시 찾는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지난 6일 내한 당시 관객과의 대화에서 “300만 명이 넘으면 한 번 더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깨비’는 이보다 좀더 많이 벌었을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다. 또한 간접광고(PPL) 수익도 다른 드라마의 두배 이상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요즘 드라마 한편의 간접광고 매출이 10억~20억 정도인데, ‘도깨비’는 20억~4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OST에서도 대박 행진을 이어갔다. 22일 현재 가수 에일리가 부른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가 각종 음원 차트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크러쉬의 ‘뷰티풀’, 헤이즈의 ‘라운드 앤드 라운드’, 예소 찬열과 가수 편지가 부른 ‘스테이 워드 미’, 소유의 ‘아이 미스 유’, 에디김 ‘이쁘다니까’, 어반지카라의 ‘소원’, 샘김의 ‘후 아 유’, 라제 린드의 ‘허쉬’ 등이 모두 음원 차트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하지만 과도한 PPL은 도마 위에 올랐다. 제작진은 회당 10억원에 육박하는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PPL이 ‘필요악’이라고 항변했지만 시청에 방해될 줄 정도로 과도했다는 지적은 이번에도 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신선기자 간담회	00 좋은 아침
10	00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신년 기자회견 2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특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신선기자 간담회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SBS 뉴스특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신선기자 간담회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20 취재파일 K	00 월화드라마 (화랑) (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꾸러기 탐구생활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 뉴스 50 TV블로그 골지락 55 열린공간 특 Talk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방송의 진실 55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아카데미	00 이웃집 찰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닥터 365
2	55 콘서트 필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6	00 2시, 뉴스브리핑
3	45 이옥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재) 55 트론생활제초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토크? 토크!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카다	00 TV블로그 골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황금주머니 (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골지락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재보자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30 리얼스토리 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10	00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00 월화 드라마 (화랑)	00 월화 특별기획 (피고인)	00 월화미니시리즈 (피고인)
11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칼럼다큐 (고대유물의 비밀을 찾아서)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썬스틸러 드라마전황
12	30 101세의 프로젝트 (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문화콘서트 남장라이브 20 MBC 뉴스 24 45 스포츠 특선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0 이팝! 스페이스 정글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05:30 세계경문록 아틀라스 <태평양 섬문화 기행 - 한국의 섬 바타네스>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사부사부 전골과 유채나물 무침)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오솔 상자(2) 15:45 출동! 슈퍼왕스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재) 16:45 덩동덩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보보 19:30 EBS 뉴스	20:40 다큐 오늘 (오징어와 양미리) 20:50 세계대기행 <필리핀 보물섬, 비사야 제도 - 위대한 유산, 파나이 섬> 21:30 한국기행 <아날로그 감성여행 - 기침없이 무전 여행> 21:50 EBS 다큐 프리덤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출판과 전사)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월 23일(음 12월 26일 庚戌)

子	48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필연코 길한 방향으로 선회하겠다. 60년생 실의가 없다면 아예 관련시킴 아무도 없었다. 72년생 무의식중에 행한 언행에 의해서 의외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84년생 기본에 충실 하라. 행운의 숫자 : 52, 84	午	42년생 재테크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54년생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용이하다. 66년생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까지는 없 도다. 78년생 핵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루자. 90년생 한걸음 더 나아가 한다. 행운의 숫자 : 87, 92
丑	49년생 위안을 주는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61년생 그냥 내버려 둬서 가장 나을 것이다. 73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고 본다. 85년생 필적하려고 하면 할 수록 더 고착되는 형상이니라. 행운의 숫자 : 60, 25	未	43년생 쉽게 보지 마라. 55년생 순위를 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 한다. 67년생 대단히 매끄럽게 풀려나가는 국세이다. 79년생 앞 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성사된다. 91년생 순리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 행운의 숫자 : 51, 64
寅	50년생 승진되지 않도록 하라. 62년생 도약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74년생 진행되고 있는 현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86년생 새싹이 찬 서리를 만나는 이치이니라. 행운의 숫자 : 77, 08	申	44년생 기존 방식대로 이행하라. 56년생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8년생 구연으로 인한 업 보가 깊으리라. 80년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니 확실치 해둘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3, 15
卯	51년생 애매한 입장에서 취한 판단들은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63년생 좋은 일이 연달아서 줄을 잇게 되는 시세이다. 75년생 주체에 따라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클 것이다. 87년생 선길후흉 할 수다. 행운의 숫자 : 07, 44	酉	45년생 맹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하는 것이 좋다. 57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69년생 관계가 건조해 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 81년생 비중 있는 곳에 시간 할애를 하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18, 49
辰	52년생 부가 가치가 크다. 64년생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광받게 되는 날이다. 76년생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리라. 88년생 주관적인 사고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6, 74	戌	46년생 시기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58년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70년생 절대적이라고 여겨왔던 바가 무너질 수 있다. 82년생 시간만 요란할 뿐이지 별 것이 없다. 행운의 숫자 : 05, 33
巳	53년생 해체나갈 수 있는 기상천외한 묘안이 보인다. 65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77년생 난제가 생겨나고 있지만 슬기를 모은다면 괜찮다. 89년생 가변적임을 감안하고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80, 06	亥	47년생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9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양호한 결과를 얻게 된다. 71년생 사소한 장애 요소는 개의치 마라. 83년생 자음이 맑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13, 0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연” ☎010-9790-8237